

中, '자본시장 개방' 확대... 투자유치로 G2 노린다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등 조치 발표
내국민 대우·환율시스템 등 다뤄
외국인 150~200억불 유입 추정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조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계 순이익 상위 5대 기업 중 미국 애플을 제외한 4개가 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다. 중국 전체 은행 자산 중 외자은행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강력한 중국의 시장 개방 의지를 표명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자본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개혁방 3대 원칙 및 세부 조치〉

①	②	③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조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
향후 수개월 내 이행	연내 이행	
은행, 금융자산관리공사 외자비율 제한 폐지,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 및 지점 동시 설립 허용	신탁회사, 금융리스, 자동차 할부, 자금중개, 소비자금융 등 은행업 분야 외자유치 장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보사의 외자지분 한도를 51%로 확대, 3년 후 폐지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한 금융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외자지분 한도 폐지	
합작 증권사의 중국 파트너에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조건 폐지	외자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5월 1일부터 후구통, 선구통 및 강구통 일중 투자 한도 4배로 확대	합작 증권사 업무범위 제한 폐지	
적격 외자 보험사의 중국 내 보험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허용	외자보험사 설립 이전 2년간 중국 내 사무소 운영 조건 폐지	
외자보험 중개회사 경영범위 제한 폐지	후룬통(상하이-런던 증시 상호투자) 개통	

했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보고, 금융리스크 예방 조치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민은행 등은 외국인 대중국 투자 지분과 한도 등을 상향

하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중국외환관리국(SAFE)은 중국 내 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경로인 적격국 내유한책임투자자(GDLP·외국계 헤지펀드 등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와 적격국내투자기업(QDIE·중국 적격 기업 중국 내 조달자금 해외투자 허용) 투자한도를 각각 20억달러, 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상향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의 중국 내 합작증권사 지분보유 한도를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했고 3년 후에는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외 후구통(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상하이 증시 투자), 선구통(해외투자자 홍콩거래소 통한 선전 증시 투자), 강구통(중국본토투자자 상하이·선전거래소 통한 홍콩 증시 투자) 등의 일중 투자한도를 4배로 확대했다. 후구통과 선구통을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강구통은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내달 중국A주의 MSCI신흥 국지수 편입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50~200억 달러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 조치는 이러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 세계 두 번째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금융시장 혁신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만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 개혁과 동시에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 개방조치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세부 일정(안)〉

수행업무	업무주체	일정
① 회계법인에 자체점검 요청공문 발송	금감원/한공회	5.14~5.15
② SPC 외부감사 실태 등 자체점검	회계법인	5.16~6.15
③ 점검결과 분석	금감원/한공회	6.18~6.29
④ 회계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금감원/한공회	7월
⑤ 위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작성 등	금감원/한공회	8월 이후

금감원, 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 '갑' 프로젝트제일차(주)(SPC)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업무수탁자(은행)는 갑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갑 SPC의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그러나 을 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결국 을 회계법인은 외감법 위반으로 담당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법상 SP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서류상 회사라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 우덕회계법인이 갑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외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감독당국이 유동화회사(SPC)의 외부 감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DGB대구은행장 후보 '김경룡·박명흠' 압축

임추위서 예비후보자 2명 선정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 후 선임



김경룡 DGB금융 회장 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DGB대구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가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2명으로 압축됐다.

13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을 선정했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심층 면접을 통해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차기은행장 후보로 내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DGB대구

은행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김 후보자는 1960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및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79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구미 영업부장, 경산영업부장, 변화혁신추진단장, 경북본부장을 지냈다. 2015년 DG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및 DGB 경제연구소장을 거쳐 2017년부터 부사장으로 전략경영본부 및 DGB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60년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와 영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5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홍보부장, 경산공단영업부장, 부울경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쳐 2017년부터 부행장으로 마케팅본부 및 서울본부를 이끌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61.7%'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1723건)로 인한 사상자 수는 1791명으로 집계됐다. 1760명이 부상했고 31명이 사망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따지면 총 634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470명이 사상했다.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8%)이 1020대로 확인됐다. 1020대의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는 71%가 등고 및 출근 시간인 오전 8~9시에 집중됐다.

전체 보행자의 20.3%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의분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20.0%로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 직전(충중) 피했다. 17.1%는 다른 사람과 상충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걷다가 '아차 사고(보행 중 차량이나 다른 보행자 등과 충돌할 뻔한 경우)'를 경험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조작하면서 걷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장 자주하는 행동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동행인과 대화 등 다중작업은 주의분산의 원인으로 전방주시율 및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면 주변의 소리 및 시야가 제한되어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호를 놓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책임연구원은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도로횡단 시에는 휴대폰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부모는 평소 자녀들에게 보행 시 휴대폰이나 휴대용 IT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신한은행

SLO 이벤트 경품 전달

신한은행은 새로운 모바일뱅킹 쏘(SO L) 출시기념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내게로와 쏘' 이벤트를 통해 추첨이 된 당첨자는 '기아 SOUL 자동차(1명)', '유럽 배낭여행 상품권(500만 원, 2명)', '안마의자(300만 원, 5명)', '호텔 숙박 상품권(50만 원, 10명)', '의류 상품권(30만 원, 50명)', '영화예매권 2매(1000명)' 등으로 총 1068명 고객에게 경품이 전달됐다.

신한 쏘를 설치하고 기아 SOUL을 타게된 1등 당첨 고객은 "수십만명이 참여한 이벤트에서 1등 당첨까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품을 고객이 선택해 응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당첨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쏘이 출시 70일 만에 이용고객이 500만명을 넘어섰다"며 "고객이 원하는 편리한뱅킹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강사: 김대익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